

# POC – Hackers dream

Network #1,2

Hacking Group “OVERTIME”

crash <[crashn5p@gmail.com](mailto:crashn5p@gmail.com)>2008.11.10

## 1. 문제 이해

### 1번 문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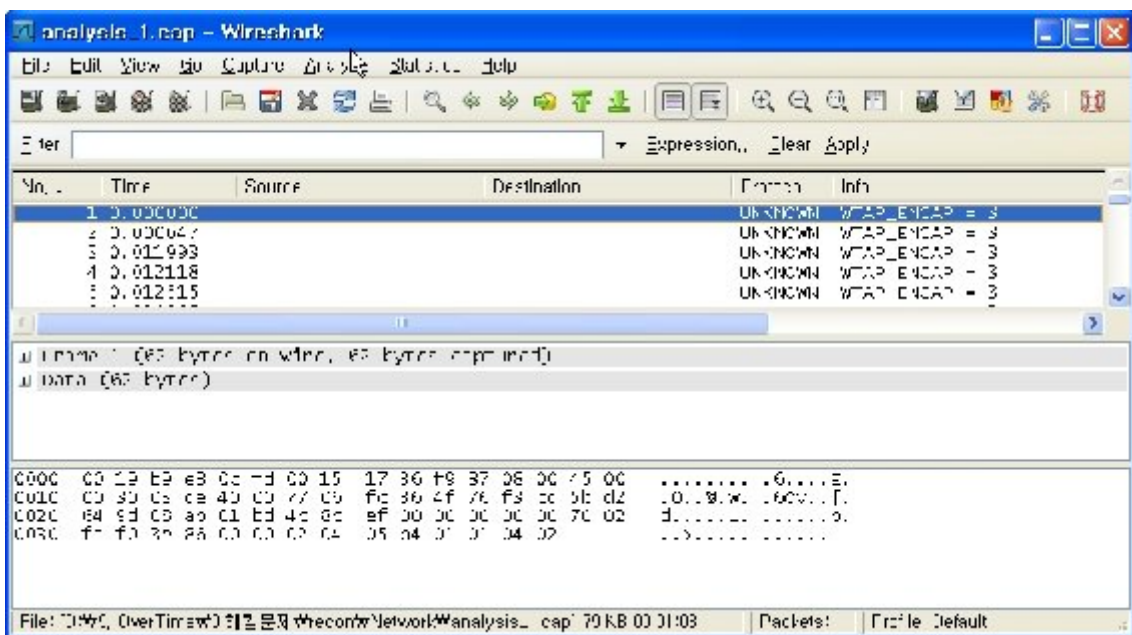
- 잘 분석하면 답을 알 수 있다. (?)

### 2번 문제

- analysis\_2의 압축 비밀번호는 1번문제의 정답 + 100번째 패킷의 TCP 헤더 체크섬 값(십진수)
- 1번 정답이 2번 문제를 풀 수 있는 패킷 위치를 알려줌

## 2. analysis\_1 풀이

1번 문제를 풀어 보기로 하고 Wireshark로 파일을 열어보니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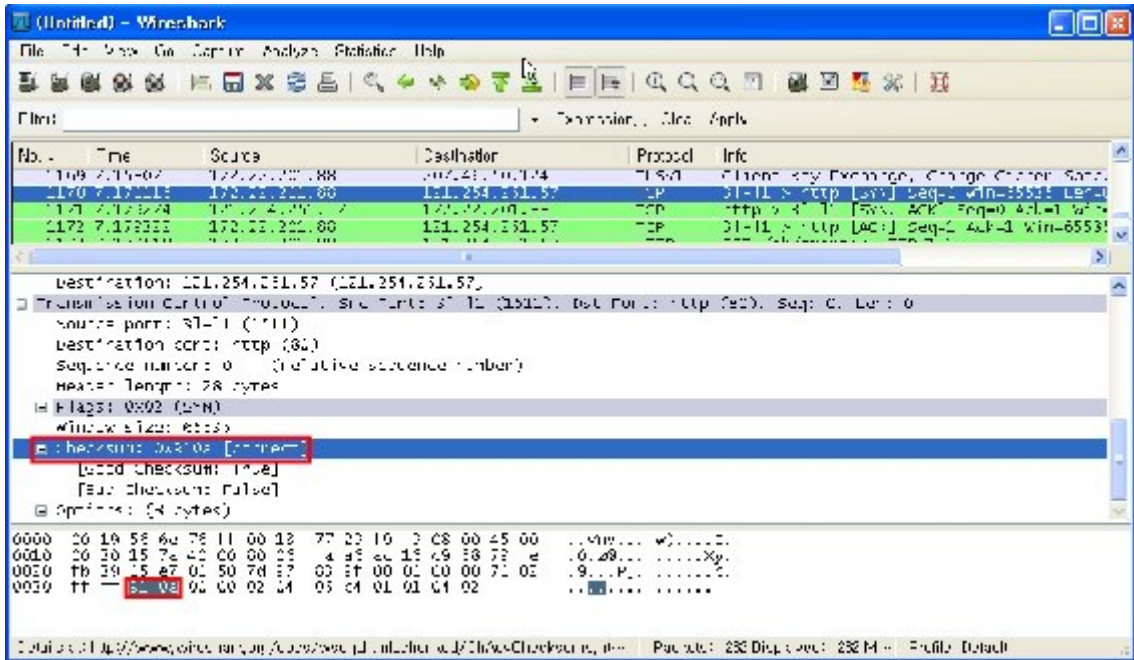


역시 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든다.

Protocol은 UNKNOWN 이고 Info는 WTAP\_ENCAP = 3 라는 정보만 나올 뿐 헤더의 상세 정보는 분석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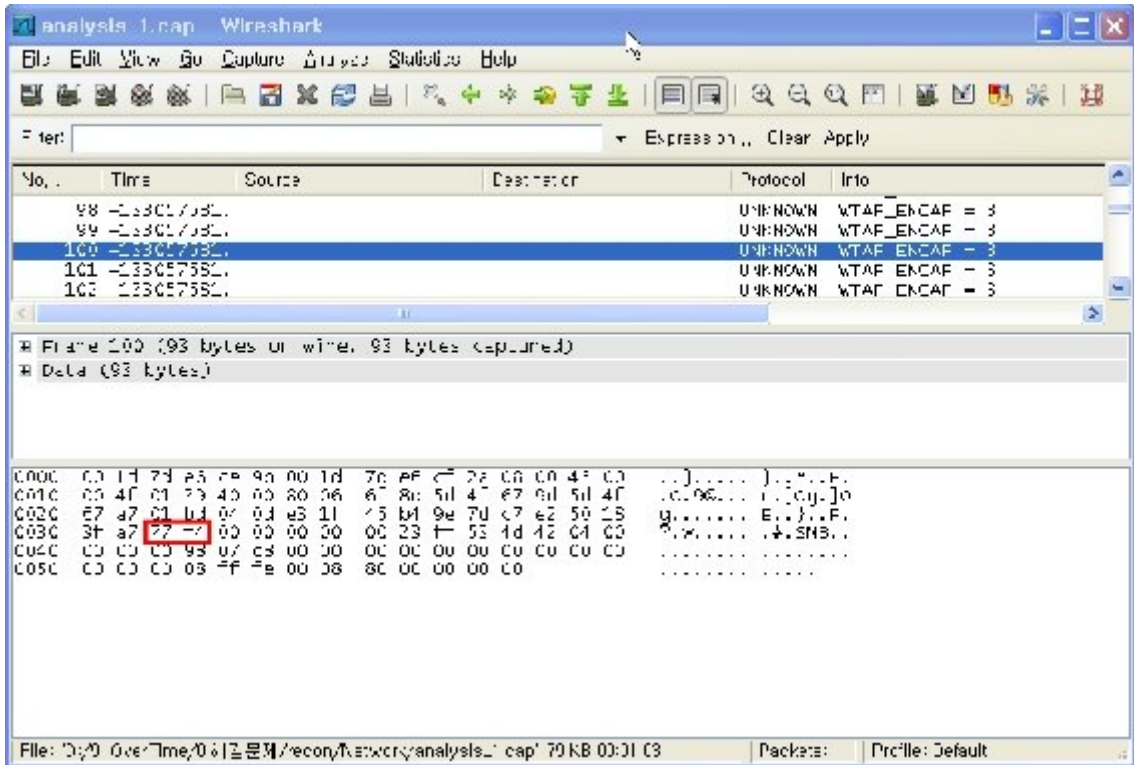
뭔가에 의해 encapsulation되어 헤더 정보를 Wireshark에서 분석 할 수 없게 된 것을 보고 실제 패킷을 캡처 한 후 패킷 정보가 어떻게 들어 가는지

확인을 해본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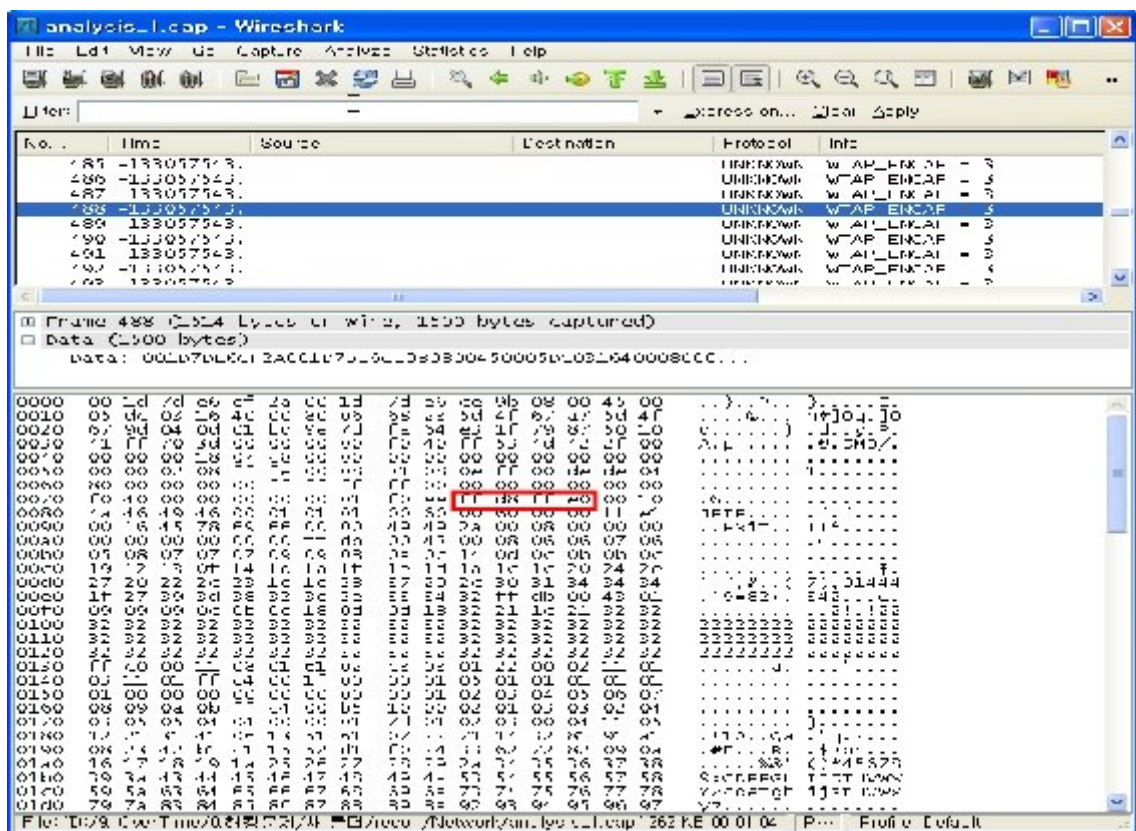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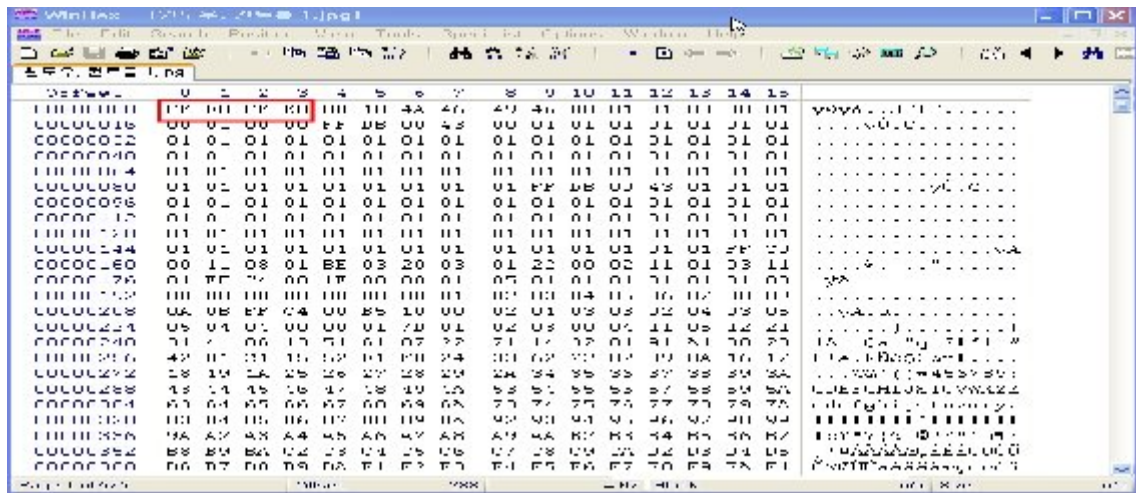
TCP헤더의 50번째 바이트 다음의 2바이트가 Checksum값 임을 알 수 있었다.

이렇게 해서 아래 와 같이 100번째 패킷을 열어보니 Checksum값이 16진수 77f4 라는 걸 알 수 있었다. 10진수로 변환하니 30708 이라는 값이 나타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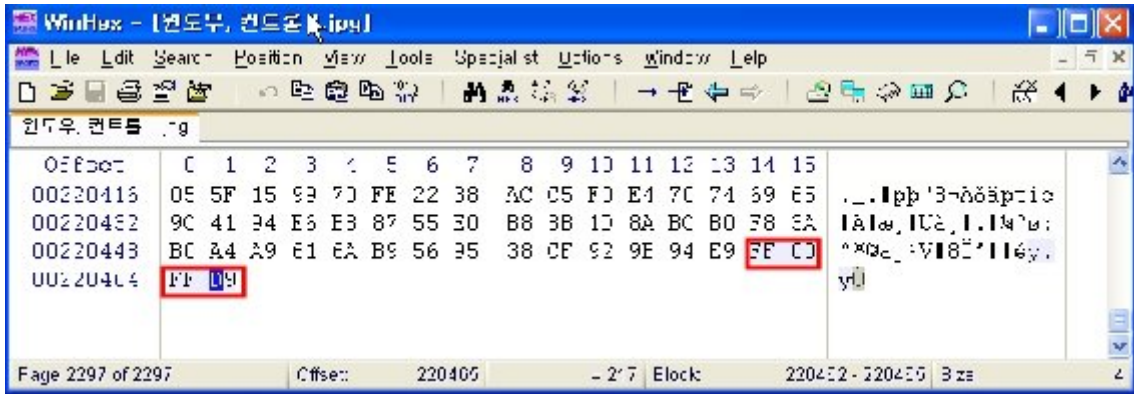
하나는 해결 했고 다음 문제를 또 풀기 위해 패킷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다. 패킷을 하나씩 쪽 읽어 나가 던 중 488번째 패킷 부터 어떤 파일이 전송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.

488번 패킷을 상세히 보니 어디 선가 많이 본듯한 것을 알 수 있었다. 그래서 몇개의 파일들을 WinHex로 열어 본다. JPG파일을 열어 보는 순간 488번째 패킷과 헤더가 **FFD8FFE0**로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

야하! JPG 파일 형식으로 전송되는 파일을 보면 그림에 답일 일을 것 같은

생각이 들었다. 그럼 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가는 패킷의 끝이 어딘지 알기 위해 JPG파일을 마지막을 확인한다.



확인결과 끝은 **FF00FFD9**로 끝이 났다. 결과적으로 JPG파일은 **FFD8 ~ FFD9** 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.

WinHex라 덤프된 내용을 Data부분만 잘라서 필요없는 부분을 버리고 JPG 파일을 만들어 보았다. 아~ 인내심의 한계!!

잘라 붙이는 곳이 문제 인지 JPG 파일이 깨끗하게 나오지 않았다.

결국 checksum이 **30708** 라는 단서를 가지고 brute force attack으로 압축파일 패스워드를 찾아 보기로 했다. 어차피 두 값을 더하는 거니까 30708 부터 brute force attack을 시도 해보았다. 틀은 그냥 알집에 있는 패스워드 찾기로 돌렸다.

하하 5분도 되지 않아 값이 나왔다. 압축파일 패스워드가 **30796** 이었다. 그럼 그림 파일의 답은 88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 갔다. JPG파일이 궁금했다.

정리해보면 Checksum 값은  $30708 + 88 = 30796$  이라는 결론이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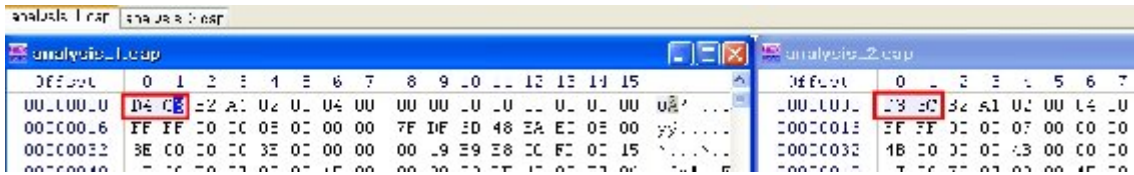
### 3. analysis\_2 풀이

압축 파일을 열어 보니 analysis\_2 파일이 있었다.

Wiresharck로 파일을 열어 보니 다음과 같은 error가 났다.



그래서 뭐가 다른지 보려고 analysis\_1과 같이 WinHax로 열어서 확인해 보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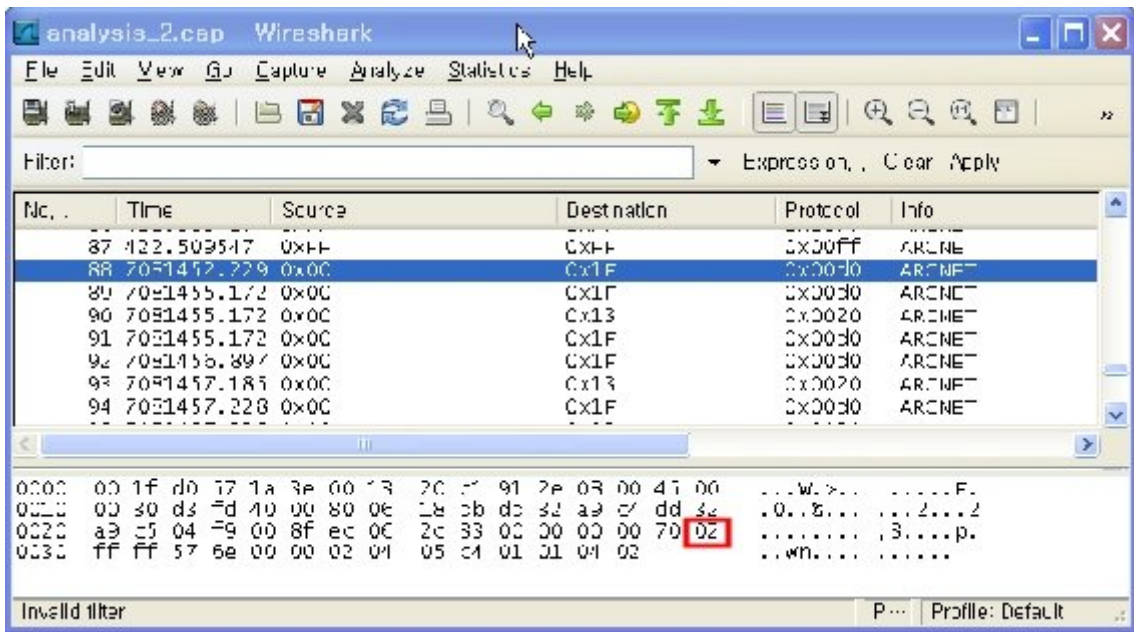


Analysis\_1은 D4C3으로 시작 하고 Analysis\_2는 D33C로 시작하는 것을 보고 Analysis\_2을 D33C을 D4C3로 수정 후 열어 보니 잘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Analysis\_1에서 나온 답 88이 Analysis\_2의 88번째 패킷에 정답이 있다는 문제를 따라 88번 패킷을 보니 뭐 별거 없었다.

그래서 다음 다음 으로 넘어가면서 패킷을 분석한 결과 92번째 패킷에 nop Sled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코드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

이렇게 88번부터 92번까지의 패킷을 보니 통신과정을 나타내고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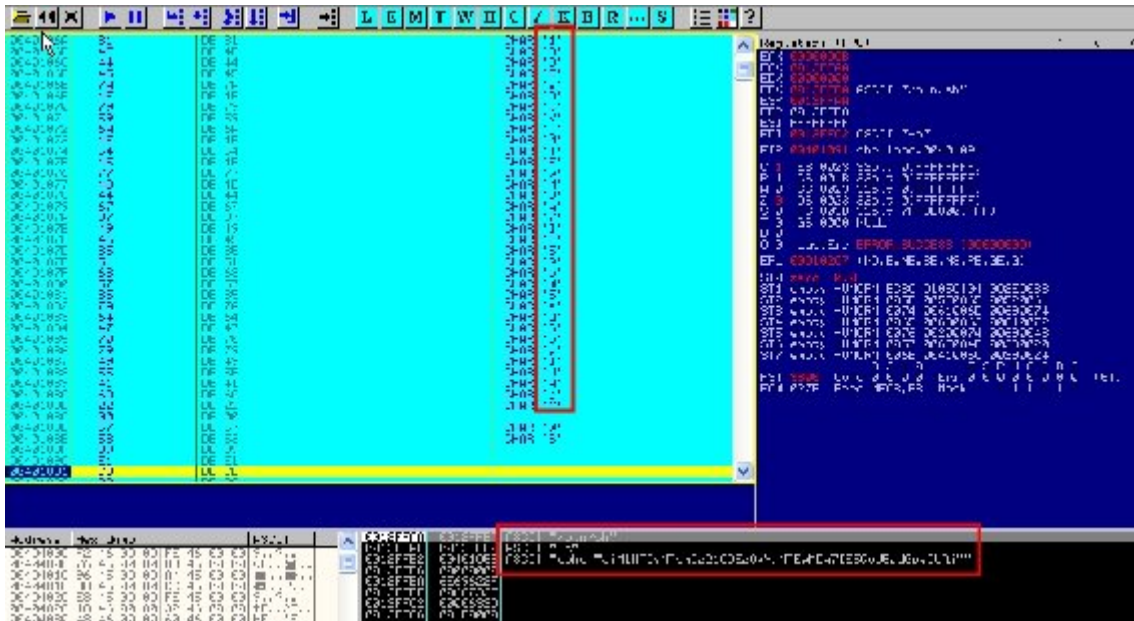
47바이트 다음의 숫자가 TCP Flag라는 것을 Analysis\_1에서와 같이 다른 패킷을 보고 확인 하였다. 이렇게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.

- 88 (02)SYN
- 89 (02)SYN
- 90 (14)SYN/ACK
- 91 (10)ACK
- 92 (18)PSH/ACK









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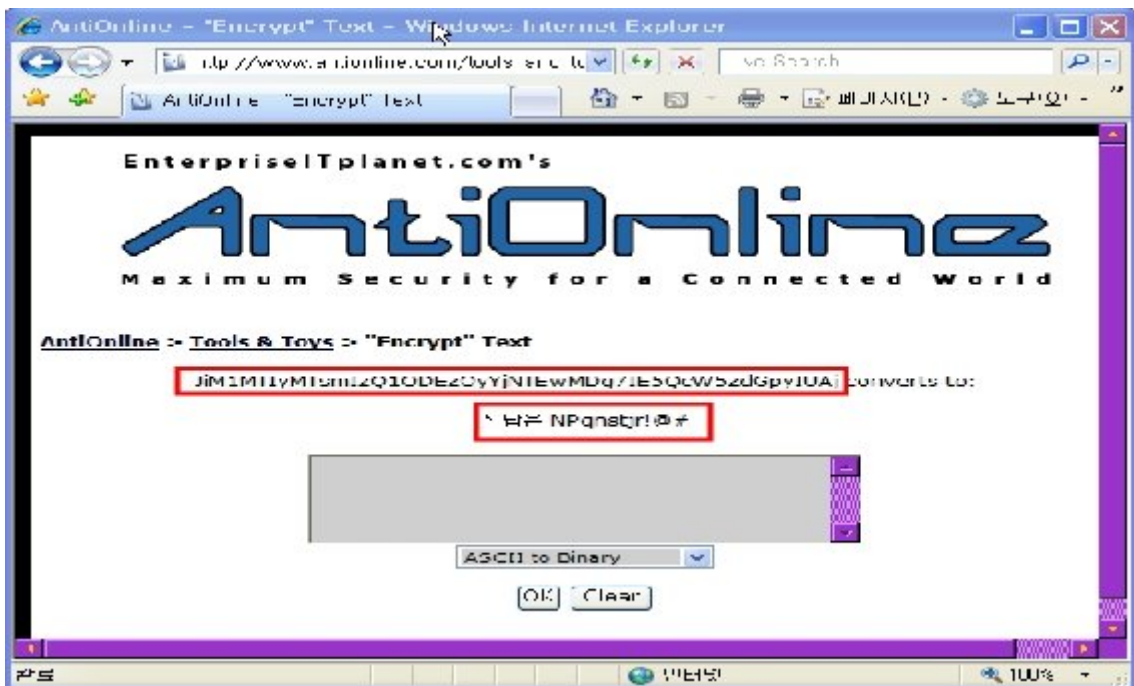
ASCII "/bin/sh"

ASCII "-c"

ASCII echo "JiM1MTIyMTsmlzQ1ODEzOyYjNTEwMDg7IE5QcW5zdGpylUAj"

자세히 보니 echo로 뭔가를 찍은 것을 보고 echo로 찍은 값이 뭔지 보기 위해 다음의 사이트에 가서 하나씩 decrypt 하기 시작했다.

<http://www.antionline.com/tools-and-toys/encrypt-text/>



차례대로 변환해본 결과 **Base 64 Decode** 에서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친절 하게도 **정답은 NPqnstjr!@#** 이라는 결과 나타났다.